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김신중 에너지지원정책본부장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대한전기학회 한민구 회장님, 전력전자학회 최규하 회장님, 대한전기협회 박
천진 부회장님!

그리고 내외귀빈과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력기술인단체로써 명실공히
80만 전기인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회원 여러분들께
서 협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좀 더 성숙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미래를 즐기롭고 현명하
게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써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화상통화 등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존재
할 수 있었지만, 작금의 시대는 책상에 앉아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도 이제
는 길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의 소식도 단 몇 초 만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에 그쳤던 일들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의 화두는 “고령화, 건강, 아이디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의 비중이
약 30%를 넘어서 초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경제가 고령화로 인해 향후 “치명상”을 입
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해 사회·노인 등의 복지문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회원도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 약 46세인 점을 감안하
면 협회도 회원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웰빙(Well-Being)이 대세였으나, 이
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
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국가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
을 수 있는 냉혹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하나하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윤택하고 왕



開
會
辭

성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기술지식기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도 지난해부터 회원들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제안제도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전력기술인과 협회 그리고 모든 전기계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8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

우리협회는 회원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과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 등 굵직한 큰 행사와 TV방영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전기관련단체에서도 우리협회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회원의 협회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회원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만여명 이상의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안전관리분야 회원과 설계·감리회원은 물론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포의 전력기술인들이 협회에 관심을 갖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년 동안에도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회원의 권익향상과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많은 일들을 펼쳐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추진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 등을 지켜왔고,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감리원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업계의 국내 시장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협회 재정에서 회비 의존도를 낮추고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회비를 인하하는 한편, 경력신고자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정의 경력신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경력신고 수수료를 법제화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0일에는 협회 중앙회를 서울 사당역 주변에 새로 구입한 지하 2층 지상 6층인 협회회관으로 이전하였고, 회관에는 상설교육장과 회원 휴게실 등을 갖추었으며 회원들이 민원업무를 위하여 협회에 방문하실 때, 최대한 빠르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회 활성화를 위해 지회 홈페이지를 새

롭게 개편하여 오픈하고 있으며, 지회의 조직강화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협회는 정부 위탁업무중 선·해임신고필증발급 등 14종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회원이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의 개발을 이미 완료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스트 과정이 끝나는 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 개최 예정인 “2007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은 참여업체 및 전시부수 등 행사 규모면에서 전년대비 약 40%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회원 배가운동과 회원권익을 위한 각종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회원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협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협회가 변화무쌍한 경쟁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남고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과 회원여러분들께서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협회가 앞장서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지키며, 후배 전력기술인에게는 힘 있고 비전 있는 협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80만 전력기술인과 협회의 밝은 미래와 자랑스러운 협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전진합시다!

끝으로, 전력기술 진흥에 크게 공헌하여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창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8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